

## '동물학대' 여론...이혜영, 메이크업 없는 반려견 재공개

등록 2026.03.27 14:27:41



[서울=뉴스시스]이혜영과 반려견. 지난 25일 공개된 사진(맨 오른쪽)에는 반려견의 얼굴에 낙서와 같은 메이크업이 돼 있다.(사진=SNS 캡처) 2026.03.27. photo@newsis.com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 남정현 기자 = 배우 이혜영이 '반려견 학대' 논란이 일자, 반려견에게 화장을 한 영상을 삭제하고 단정한 상태의 반려견 사진을 새로 게재했다.

이혜영은 27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.

사진 속 반려견은 화장이 지워진 깨끗한 상태였다. 이혜영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반려견을 응시하고 있다.

앞서 이혜영은 지난 25일 반려견에게 화장을 한 사진을 공개한 후 동물학대 논란을 빚었다.

공개된 사진 속 반려견 얼굴엔 낙서에 가까워 보이는 메이크업이 돼 있었다.

이혜영은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지만 댓글창은 "동물학대"라는 반응으로 가득찼다.

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"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"라거나 "사람이 쓰는 화장품을 썼다면 반려견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"고 지적했다.